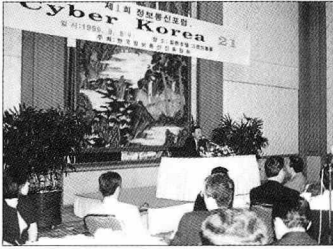


「사이버 코리아 21」 주제로 제1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21세기 한국의 정보통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제1회 '정보통신포럼'이 지난 8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Cyber Korea 21'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남궁 석 정보통신부 장관, 정장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을 비롯해 손용기 협회 부회장,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한국의 정보통신 강

국 건설을 위한 상호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남궁 석 정보통신부 장관은 "향후 세계경제는 국토의 크기나 자원의 양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따라서 미래 정보화 사회에 일등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화 마인드 확립과 인프라 확립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 장관은 또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어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하고 "정보화가 밀려오는 바로 지금

정보화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산업시대의 출발에 선 1959년대에 비해 현재 국력 성장 규모가 200배나 높아졌으며, 특히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그동안 20% 이상 성장하는 등 전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에는 세계 5위권의 지식,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향후 4년간의 역점 정책과제인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전반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데이터망 요금 체계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협회는산업진흥팀은 지난달 17~18일 이틀간에 걸쳐 충남아산시 파라디이스호텔고고에서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망 요금 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정보통신부 서홍석



부기통신과장의 데이터망 요금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기초발표와 함께 세 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KISDI 초성운 박사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데이터망 요금체계의

발전방향'이라는 제 1주제를, 그 뒤를 이어 ETRI 지경용 박사가 '네트워크 진화전망과 광대역 요금정책 방안'이라는 제 2주제를, 마지막으로 동덕여대 유국렬 교수가 '국내 데이터망의 바람직한



요금구조'라는 제 3주제를 차례대로 발표했다.

토론회 이튿날에는 아이네트의 이동수 이사, 데이콤 황병돈 부장, 한국통신 성낙일 팀장, 삼성SDS 홍헌우 이사 등의 패널들이 첫날 발표한 주제발표 내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널들은 대체로 현재의 데이터망의 요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요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커다란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그동안의 적자를 내세워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한국통신과 그럴 경우 전용회선사용비용 상승으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채산성 악화가 심화된다고

맞선 ISP사업자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결국 이 문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드러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숙제로 남게 되었다.

또한 최근 등장한 ADSL시장에 관해서도 하나로통신과 한국통신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통신은 ADSL시장을 매우 제한된 소규모 시장으로 보는 반면, 하나로통신은 향후 4~5년 내에 ADSL 수요가 Dial-up 시장의 50~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멀티미디어협의회 운영위원회 제 2차 회의 결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30분~9시까지 타워호텔 프린스룸에서 멀티미디어협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김건중 위원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된

회의는 우리 협회 한태인 조사통계실장의 「XML/SGML시스템 구축전략과 응용기술 세미나/전시회」개최 안내, 전호인 분과위원장의 「IEEE 1394 국제 세미나/전시회」추진현황 설명, 허영분

과위원장의 「동향정보 분과위원회」구성 경과 보고, 「3차원 영상매체(3D) 기술, 국제 세미나 제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IEEE1394와 관련해서는IEEE 1394와 특허권, 국제세미나·전시회 점검 및 보완사항, 1394TA 참여가능성 타진, 분과위원회 운영방향, 기술현황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밖에도 3D기술의 기술현황, 국제세미나 산업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건중 위원장 등 16명의 위원과 협회 손용기 부회장 등 임직원 3명이 참석했다.

● 제3회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및 인터넷 전문가실기 시험실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인증팀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제3회 인터넷인증시험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먼저, 1차 필기, 2차 실기로 2번에 나눠 실시된 이번 시험의 최종 합격률은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이 15.4%, 인터

넷전문가가 8.1%에 각각 머문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던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8월 29일에 실시된 정보검색사 1급 시험은 총 응시인원 7,678명 중 1226명이 합격했고, 같은 날 실시된 인

터넷전문가 시험은 총 응시인원 218명 중 14명이 최종 합격했다.

협회 인터넷팀은 이달 19~21일 인터넷정보검색사 2급 1차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시험 접수는 10월 26~11월 1일까지 받는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네이버컴과 업무제휴키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컴(NAVER.CO-M)을 통해서도 우리 협회의 인터넷정보검색사 인증시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인증팀은 네이버컴(대표 이해진)과 최근 양사 업무제휴에 관한 약정서를 교환하고 10

월부터 본격적인 업무협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정서에 따르면 협회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버의 검색창을 게재하고, 인터넷기술자격인증시험 일간지 공고시 네이버 협찬 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네이버는 웹페이지 중 '네이버 핫'(NAVER HOT) 부문이나 이에 상응하

는 위치에 인터넷기술자격인증시험 안내문을 고정 게재하고, 인증시험의 출제 및 정책수립을 위해 검색키워드, 통계, 이용자 통계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협회와 네이버컴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제휴의 내용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XML/SGML시스템 구축전략과 응용기술 세미나·솔루션 전시회」 개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멀티미디어협의회 SGML / XML분과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총 연합회관 대강당에서 「XML/SGML시스템 구축전략과 응용기술 세미나·솔루션 전시회」를 개최했다.

협회 손용기 부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주종철 대표이사의

XML/SGML Business동향과 전망등 14명의 발표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전시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협회 멀티미디어협의회 SGML / XML 분과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전자거래(EC / CALS) 협회·한국전산원·매일경제신문·전자신문 등이 후원하였다.